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44호
2024년 7월 8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이상길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폐암’도 중입자치료 시작

65세 남성, 종양 추적 관찰 중 크기 커지자 중입자치료 결정 국소제어율 높고 방사선폐렴 등 부작용 적어

연세암병원이 지난달 25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김모 씨(65세, 남)로 일주일 동안 총 4회의 중입자치료를 받고 28일 모든 치료를 마쳤다.

김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돼 정기적으로 CT를 촬영하며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던 중 종양이 커지자 중입자치료를 받게 됐다.

전체 폐암 환자의 60% 정도는 4기에 처음 진단받는다. 폐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또한 폐암 환자 상당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흔하다.

폐암 중입자치료에는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를 이용한다.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는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면서 암 발생 위치 등을 고려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20년 이상 중입자치료를 진행 중인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중입자치료 성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 방사선치료와 비교해 부작용도 현저히 적다.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중입자치료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연구소(QST)가 주요 의학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3cm 이하의 초기 종양은 3년 국소제어율이 95% 이상이고, 종양이 더 큰 경우에는 80~90%의 국소제어율을 보였다. 국소제어율은 치료받은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확률로 특정 부

위(국소, 局所)를 타겟하는 중입자치료에 있어 치료 성적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아울러 방사선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방사선폐렴’의 발생률도 중입자치료는 3% 이하로, 기존 방사선치료(최대 20%)보다 낮았다.

수술이 어려운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암에도 중입자치료가 가능하다. 중입자치료를 시행하면 떨어진 폐 기능과 상관없이, 정상 장기는 피하고 암세포에서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입자치료의 특성상 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군마대학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폐렴 발생률도 7.6%에 그쳤는데, 간질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기존 방사선치료를 적용했을 때(30%)와 크게 대비된다.



의대 김경환 교수(방사선종양학)는 “국내 처음으로 폐암 환자에 중입자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웠다”며 “추후 면역항암제 공고 요법 등 환자 치료 성적을 최대화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치

료 대상 환자를 계속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취재암과 간암 3기 환자에게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연세암병원은 이번 폐암에 이어 하반기에는 두경부암까지 치료 암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EGFR 돌연변이 폐암 기존 치료보다 병용 치료가 우수

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병용시 무진행생존기간 30% 향상, NEJM(IF 176) 게재



EGFR 돌연변이 폐암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기존 3세대 표적치료제보다 우수한 치료제

병용 3상 결과가 나왔다.

의대 조병철 교수(내과학) 연구팀은 치료력 없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국가, 무작위 배정 3상 연구에서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 병용 요법이 기존 표준치료제 오시머티닙보다 무진행생존기간을 30% 정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F 176.082)에 실렸다. 종양학 분야 저자로 NEJM 두

번 게재는 조병철 교수가 국내 최하다. 또 국산 항암제 임상 결과가 NEJM에 게재된 것도 처음이다.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 25~4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45만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폐암의 가장 큰 아형이다.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제는 오시머티닙이 유일하다. 오시머티닙은 반응을 80%와 무진행생존기간 16~18개월을 보이고 이후 환자 대부분이 내성을 갖는다.

조병철 교수는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 병용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은 각각 진행성 EGFR 돌연변이 폐암,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 약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이전 1, 2상 연구에서 병용 요법 효과를 확인한 만

큼 다국가, 무작위 배정 3상 임상을 이어갔다.

병용 요법 치료 환자 429명의 무진행생존기간, 반응지속기간은 23.7개월, 25.8개월로 오시머티닙 치료 환자 429명(16.6개월, 16.8개월)보다 길었다. 2년 생존율도 병용군 74%로 오시머티닙군 69%보다 높았다.

병용 요법의 주요 부작용은 피부 발진과 손발톱 주위 염증 등으로 대부분 조절 가능한 정도였다.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중개 연구부터 3상 연구, 그리고 두 약제 병용 3상 임상까지 이끌어온 조병철 교수는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병용 요법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임상 결과로 FDA로부터 병용 요법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받았다”고 말했다.

삼릉물산 조흥로 대표 연세조락교의학포럼 기금 5억원



삼릉물산(주) 조흥로 대표가 의과대학 연세조락교의학포럼 기부금으로 5억원을 후원했다.

1일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흥로 대표와 윤동섭 연세대 총장, 금기창 의료원장,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참석했다.

조흥로 대표는 “아버지는 항상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당신이 생전에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를

위해 더욱 많은 나눔을 하고 싶어 하셨던 뜻을 이어받아 이번 후원을 결심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연세조락교의학포럼은 연세조락교의학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은 연세조락교의학대상 수상자, 교의 연자, 교내 연구자간 만남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 대한민국 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KS-WEI 종합병원 부문 1위

18년 연속 1위...우수한 치료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4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인증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2007년부터 18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표준협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웰빙경쟁력 지수인 건강성(Health), 환경성(Environment), 안전성(Safety), 충족성(Satisfaction), 사회성(Social Responsibility) 5개 부문과 웰빙만족도 지수로 전반적·상대적·감정적 만족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웰빙만족도 지수 중 전반적 만족도와 상대적 만족도 부문

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환자 경험' 개념을 병원경영에 도입한 세브란스병원은 입원, 외래, 검사 등에서 환자 만족도 상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내원객의 만족 및 불편사항을 모두 데이터로 관리한다. 나이가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병문안 시스템인 '응원톡톡' 게시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방법을 마련했다. 나이가 입원환자들의 수면 질 개선을 위해 귀마개와 수면안대 등으로 숙면을 돕는 꿀잠 프로젝트, 평소 환자가 궁금했던 점을 기록하면 주치

의가 답변해주는 회진 질문 게시판도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이처럼 긍정적인 환자 경험 증진을 목표로 환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질적 목표 달성에 충실했다. 전 세계 단일 기관 중 최초로 지난해에는 로봇수술 시행 4만례를 달성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간이식 성공, 해외 환자 초청 프로그램인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를 통한 의료 취약국 환자 치료까지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중증·난치 질환정복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중입자치료를 도입해 작년 4월 치료를 시작했다. 나이가 올 5월부터는 회전형 중입자치료를 가동해 췌장암과 간암, 폐암 환자까지 치료하기에 이르렀다. 중입자치료는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2~3배 높은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어 난치 암 극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수립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차세대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3D 프린팅 등 최신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차세대 디지털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간 협진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도 미래 의료 선도하기 위한 도약의 일환이다. 이에 더해 데이터 기반의 임상 프로세스와 자원관리가 가능한 재난대응 대비보드를 도입하고, 병동 고위험 환자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 체계의 디지털화를 확립할 예정이다.

YMJ, 영향력 지수(IF) 2.6으로 상승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 카테고리 Q1로 상승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의학 저널 Yonsei Medical Journal(이하 YMJ)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2.6으로 상승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ty Analytics)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3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저널 인용 보고서)에 따르면, YMJ는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 카테고리

에서 325종의 저널 중 70번째로 상위 25%를 나타내는 Q1로 업데이트됐다. 2022 JCR에서 169종의 저널 중 95번째로 Q3에 위치해 있던 것과 비교해 두단계 상승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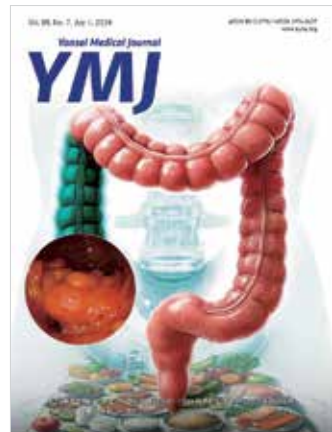
국내의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내 인용은 약 18%, 교외 인용이 약 12%, 해외 인용 비율은 70%에 이른다. 이는 원내 연구자의 노력과 더불어 저널 자체

가 지닌 영향력과 신뢰도가 영향력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연구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년도 JCR의 영향력 지수는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 12월 창간된 YMJ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문의학학술지로, 1998년 국내 종합의학학술지로는 처음으로 논문 인용지수를 산출하는 과학기

술논문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됐으며 2004년 스코퍼스, 2009년 PubMed Central에 등재됐다. 2014년에는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국제학술지 데이터베이스과학인용색인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국내에서 세 번째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한편, YMJ는 2018년부터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https://www.eymj.org>)에서 발행본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도부터는 cover art와 graphical abstract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논문 내용을 파악



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몽골 슈바이처' 이태준 지사 새 기념관 건립한다

국가보훈부 주관, 1520㎡ 규모로 올해 말 완공 예정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 이태준 지사의 기념관이 몽골 현지에서 새롭게 세워진다.

국가보훈부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이태준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19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기념관은 연면적 152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전시관, 수장고, 사무실,

강당, 교육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문가 자문과 전시 콘텐츠 제작 등을 거쳐 광복 80주년인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의료원은 2000년 몽골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부지에 이 지사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또 2006년에는 공원 안에 '애국지사 이태준 기념관'을 세웠다.

이번 신축은 몽골한인회가 희망해 국고로 지원한다. 새 기념관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만든다.

이 지사는 1883년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서 출생해 1907년 세브란스의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중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했다.

1912년 중국 난징으로 망명해 중

국 기독교 의원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1914년 몽골로 이주, '동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차렸다.

당시 몽골인 대다수가 감염된 화류병을 치료하면서 몽골인들에게 신처럼 추앙받고 '뫼다 의사'라고 칭송받았으며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가 됐다.

1919년 몽골로부터 귀중한 금강석이라는 뜻을 가진 '에르데니 인 오치르'라는 명칭의 최고 훈장을 받았다.

몽골 사회에 정착하는 한편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을 제공하고, 1918년 9월 김규식에게 파리강



화회의 참가 여비를 주는 등 항일 운동에 계속 참여했다.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려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2017년 위패를 국립서울충원에 모셨다.

강남, 故 문재호 교수 흉판 제막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1일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고 문재호 명예교수 1주기를 기리는 흉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호 교수의 유족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지훈상 전 의료원장, 박창일 전 의료원장 그리고 재활의학교실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송우용 원목실장의 기

도를 시작으로, 문재호 교수의 주요 약력 소개, 추모 영상 상영, 흉판 제막 순으로 고인을 기리는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고 문재호 명예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물론, 우리나라 재활의학과 호흡재활의 토대를 쌓아 올린 선구자로 꼽힌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재활의학 전문의 과

정을 수료한 문 교수는 1983년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준비위원 및 재활의학과 초대 과장을 역임하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치료의 기반을 닦았다. 1984년에는 척추 관련 비수술적 치료법을 알리는 요통학교를 설립해 격주 금요일마다 무료로 환자들에게 의학강좌를 진행했다. 1985년에는 국내 최초로 근육병 재활클리닉을 개설해 근육병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을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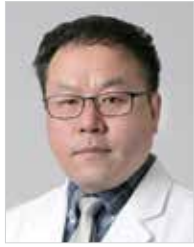
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에 재활의학의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고 문재호 명예교수의 유족들은 1월 문 교수의 유지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호흡재활센터 발전기부금(2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건립기부금(1억원), 재활의학과 발전기부금(1억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발전기부금(1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환자 BMI 낮으면 질병 악화



의대 신성재 교수(미생물학과)와 최상원 대학원생 연구팀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환자

에서 낮은 BMI와 관련된 대사적 요인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바이오메디신'(eBioMedicine, IF 11.1)에 게재됐다.

비결핵 항산균(이하 NTM) 폐질환은 NTM이 폐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NTM 감염은 폐질환, 림프절염, 피부·연조직·골 감염은 물론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폐질환이 가장 흔하며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200여종의 NTM 중에서도 미코박테리아비움복합체(이하 MAC) 감염은 사람에게 만성 세균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체다.

다수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MAC 폐질환 환자들은 낮은 체질량지수(BMI)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을 통해 낮은 BMI 상태가 MAC 폐질환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MAC 폐질환에 저항성을 보이던 마우스 모델에 저단백 식이를 적용해 낮은 BMI 상태를 유도한 뒤 질병의 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정상 BMI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던 질병이 낮은 BMI 상태에서는 지질대사의 변화와 함께 진행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했다. 저단백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모델은 폐 조직에서 지방산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이는

MAC 폐질환 진행성 환자의 혈청 내 지방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특히, 저단백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지방산 흡수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D36의 발현과 큰포식세포 내 지질 축적이 증가했는데,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CD36 단백질로 인한 지방산 흡수가 큰포식세포 내 세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저단백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 영양을 보충하자 교란된 지질대사와 높은 CD36 단백질 발현이 정상 수

준으로 회복됐고, 균량 또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항-CD36 항체를 저단백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 투여하자 폐 조직 내 지방산 함량과 큰포식세포 내 지질 축적이 감소하고 세균 성장도 낮아져 질병 진행이 다시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성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MAC 폐질환에서 낮은 BMI와 관련된 대사적 지질교란 요인이 질병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MAC 폐질환을 대사적 감염병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대사적 경로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 두경부암, 정밀 면역항암치료 타깃 제시



고 윤 우

의대 고윤우·김다희(이비인후과), 김혜련(내과) 교수와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하상준 교수 연구팀이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 두경부암 환자의 종양 미세환경 내 암세포와 면



김 다 희

역세포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정밀 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포와 분자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밀 면역항암치료 타겟을 제시했다.



김 혜 련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암면역치료연구'(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 IF 10.9)에 게재됐다.

두경부암은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한 두경부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행히 HPV 양성 두경부암 환자들은 음성 환자들보다 일반 항암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HPV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에

서 면역항암치료의 예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HPV 양성 두경부암의 암조직을 단일세포 수준에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HPV 양성 두경부암 환자의 세포독성 T 세포에서 특이적인 CD161 수용체 발현이 면역항암치료 효과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D161 수용체의 발현이 B세포에서 CD161 리간드 발현을 저해해, 면역항암 이전에 중요한 3차 림프계 구조 형

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으로 인해 HPV 양성 두경부암 환자가 음성 환자에 비해 다양한 항암치료에서는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면역항암치료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윤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세포독성 T 세포의 특이적인 CD161 수용체 발현이 HPV 양성 두경부암의 면역항암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나아가 향후 CD161 수용체를 저해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HPV 양성 두경부암 환자의 면역항암치료 효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 MEF 펠로우 초청연수 환영행사 성료

제중원보건개발원이 지난달 2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MEF 펠로우 초청연수 환영행사를 실시했다.

제중원보건개발원은 2019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호치민의학대학교(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UMP)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MEF(Medical Education

for the Future)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MEF 사업 중 하나인 연구역량제고를 위해 초청한 펠로우 환영식으로, 연수생은 교수급 6명과 석박사급 9명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6개월간 의료원 교수 임상과 연구를 참관한다.

이은직 의대 학장은 축사에서 "연수기간 동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좋

은 결실을 맺어 의료원과 돈독한 유대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안신기 사업단장은 올해가 MEF 사업의 중간시점이며 올해 연수생의 활동과 성과가 사업 평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성과와 더불어 지도교수와 신뢰를 쌓아 연수 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로 발전해 나가길 당부했다.

연구역량분과 최인홍 책임교수는 연



수 프로그램 내용과 지난 연수생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지도교수와 연수생을 소개했다. 또 MEF 현장 사무소 책임자 이민걸 특임교수는 "연수생 각자가 UMP 대표자라는 자부심으로 연수

하면서 첨단 의학지식을 많이 습득해 UMP와 베트남 의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간호대, 공과대학과 융합연구 세미나

간호대학이 최근 진리관에서 연세대 공과대학과 함께 융합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간호학과 공학 분야의 학문 간 접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연구원, 학생들은 이날 특강을 통해 각 분야의 최신 동향과 함께 효과적인 연구 협력 방법과 지식을 공유했다.

정종문 연세대 국제학부장이 '공과대학-의료원 융합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간호대 김희정 교수와 전기전자공학과 이상훈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융합연구과제였던



정신건강을 위한 감성 인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간호대 이안나 교수와 전기전자공학과 유기준 교수팀은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디바이스 개발'에 대해, 간호대 박정옥 교수와 전기전자공학과 이태운 교수팀은 '실시간 림프부종 모니터링 및 림프 순환을 돕는 장치개발'에 대한 연구기획안을 발표했다.

치대-선문대 치위생학과, 연계교육 OT

치과대학이 지난달 20일 서병인홀에서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와 연계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연계교육에는 치대본과 4학년 학생 65명과 선문대 치위생학과 학생 41명이 참여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치대 조재현 교수(치의학 교육학)는 연계교육과 진료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감염관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교육기간 동안 참여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영역의 사전 강의가 이뤄졌다.

한편, 치대는 2019년부터 매년 선문대 치위



생학과 학생들과 연계교육을 진행해왔다.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추후 실제 환자 진료 환경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서로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QI종합학술대회 개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6일 은명대강당에서 2023년 QI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 1부에서는 환자안전, 표준진료·표준업무, 환자경험·고객만족, 행정업무 개선 부문 등 네가지 주제로 총 12팀이 연계를 발표했다.

이날 대상은 '신속대응팀 활성화 증진'을 통한 환자 안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신속대응팀(WeSave)에서 수

상했다. 금상은 '방광 초음파 도입을 통한 방사선치료 프로세스의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발표한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차지했다. 이어 은상은 입원 환자의 욕창 예방 활동에 대해 발표한 입원간호1팀·간호지원팀·호흡기내과·통합내과 그리고 외국인환자 관리 EMR 개발을 통한 진료 프로세스 개선 활동 방안을 밝힌 국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부에서는 노지영 임상술기교육

팀장이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기법과 현실성(총실성) 강화 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부서 소생술 대응 팀워크 향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노 팀장은 "시뮬레이션 교육은 부서 상황에 맞춘 현장감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및 구체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의 임상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은명대강당 로비에는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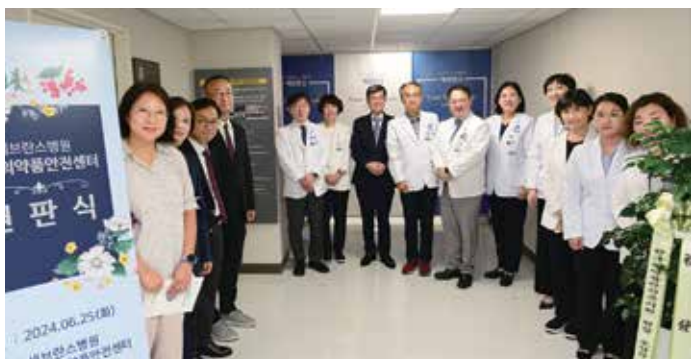


대회 포스터 부문에 참가한 12팀의 포스터가 전시됐다.

이익재 진료혁신부원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

관과 직원의 노력이 수준 높은 QI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위한 QI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확장 개소



세브란스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지난달 25일 제2관 지하1층으로 확장 개소했다.

이번 확장에 따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물 부작용 평가와 사례 수집, 약물 부작용 상담, 약물이상반응 교육·홍보, 약국과 협업 등 기능 강화에 나선다.

환자를 위한 약물상담실은 본관 3층 한곳에서 두곳으로 증가했다. 환자들은 손쉽게 약물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상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안전카드 발급,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학·약학 대학생과 약사가 약물이상반응을 실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확보했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스템 교육과 함께 약물이상반응 사례 검토, 주기적인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안전한 약물 사용의 주간 행사 진행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본관 3층에서 안전한 약

물 사용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안전한 약물 사용의 주간' 행사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조영제 안전관리, 항암제 부작용 대처, 임신부를 위한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안내물을 배포했다. 또 조영제 안전관리, 항암제 부작용 대처법, 중증 피부 유해 반응 원인을 알리는 포스터도 전시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상담도 진행했다.

이재현 센터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물 감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센터 개소 20주년을 앞둔 만큼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빌드업 세미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6일 4층 대강당에서 진료협력 네트워크 빌드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직원과 경기 남부 권역 협력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과 조덕규 진료협력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에서는 서민정 진료협력파트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생태계 구축'의대 김현중 교수(용인 입원외과)의 '전문의 중심 진료 및 요



양기관에서의 응급환자 관리' 등 발표가 이뤄졌다.

행사 말미에는 각 협력 기관 관계자와 교직원이 행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는 등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덕규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난달 27일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성인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행동치료 분야 연구도 함께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행동중재 전문 인력이 발달장애인 행동평가와 중재치료를 진행하고 행동중재 효과 상생을 위해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다.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행동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거점병원으로 연계하고 행동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환자 치료과

정을 세브란스병원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연구를 위한 설문지 내용, 행동 데이터 등 자료도 공유한다.

천근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약에 힘입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적 케어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받아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10월에는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현재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과 교육,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서북부 지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 지역 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6일 성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 호흡재활센터, 환자 위한 심포지엄 개최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우와 보호자 대상 영양 강의 진행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지난달 8일 병원 중강당에서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호흡재활센터는 2011년부터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

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적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운영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자와 보호자가 겪을 수 있

는 영양 문제'를 주제로 다뤘다. 의대 김윤아 교수(강남 소화기내과)가 '소화기 관련 장애 및 위루관 관리'를, 영양팀 김미화 영양사가 '영양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호흡재활센터는 학업에 도전해 대학 입학과 졸업을 맞는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들을 축하,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한국의 호킹들'이라는 주제로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

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술 심포지엄 및 홈커밍데이 개최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가 지난달 21일 연세대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학술 심포지엄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의대 구성욱 교수(강남 신경외과)와 의료기기산업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의료기기 관련 우수논문 및 학술활동 발표를 통해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교수진과 졸업생·재학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의료기기산업 학술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의대 장원석 교수(의생명과학부)가 좌장을 맡았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디지털의료제품법', '품질비용 최적화를 위한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방안', '척추경 나사의 헤드 및 잠금 나사 디자인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 개선에 대한 생체역학적 조사', '의료기기 품목분

류를 기반으로 한 HS CODE 개선방안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와 3부에선 학과생들의 의료기기 현업 이해를 돕는 취업설명회와 홈커밍데이가 각각 진행됐다. 홈커밍데이에서는 선배와 후배가 멘토와 멘티로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욱 주임교수는 "이번 심포지엄 및 홈커밍데이는 선후배 간 화합, 그리고 국내 의료기기산업 실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였다"며 "산업에 대한 배움과 선후배 간의 따스함이 공존하는 자리를 앞

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 QPS 리더 임명식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QPS 리더 임명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송영구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박윤길 적정진료관리실장, 안경아 간호국장, 그리고 QPS 리더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QPS(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리더란 의료 질 향상 촉진자(QI facilitator)와 환자안전 리더의 합성어로, 부서내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를 뜻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문화 정립을 위해 2010년부터 의료 질 향상 촉진자 교육을 시행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환자안전리더의 역할을 제도화해



운영해왔다. 2024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두 활동을 통합해 운영한다.

2024년 QPS 리더는 총 36명으로, 간호국 30명과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영양팀, 병리팀, 이식중환자외상

외과 직원 6명이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QPS 리더는 리더임을 알 수 있는 배지를 착용한다. 7월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활동 지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격월로 열리는 'QPS 리더모임'을 통해 활동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고위험 신생아 위한 특별 강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고위험 신생아 가족들을 위한 무료 특별 강연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문둥이, 선천·후천 질환 등 고위험 출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석했다.

고위험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다. 꾸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

고위험 신생아 가정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생아과와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각 임상과의 교수들이 진행 중인 최신 연구내용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 '고위험 신생아의 장기 추적'에서는 의대 신경은 교수(소아과)가 '조금 앞쪽 태어난 우리 아기, 지금은 잘 크고 있는 걸까요?' 강의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로 태어난 자녀들의 건강 관리와 성장 과정을 짚었다. 의대

은호선 교수(소아과)는 '선천, 후천 질환을 가진 우리 아기들의 현재와 미래에서 자녀들이 앓고 있는 질환과 관련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고위험 신생아와 가족들의 마음 치료'에서는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부모들의 마음 건강 관리법을 나눴다.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는 '고위험 신생아와 발달 장애' 강의에서 고위험 신생아에게서 보일 수 있는 발달장애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 이정환 교수(정신과학)는 '고위험 신생아와 기타 소아 정신과 질환에서 자녀들이 앓을 수 있는 소아정신과 질환을 설명하며 예방, 관리법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의대 최항녕 교수(정신과학)는 '고위험 신생아들의 가족 교육'을 통해 고위험 신생아 자녀를 둔 가족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준 것은 물론 부모들의 지친 마음을 달랬다.

모든 강연 끝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이 QR코드로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교수진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과대학병원, 구강보건의 날

치과대학병원이 지난달 4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한치과병원협회와 함께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구강보건 관련 8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분수광장 홍보부스에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준비해 시민들의 구강 건강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치대병원은 무료 구강 상담, 구강 위생용품 교육, 구강관리 O/X 퀴즈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했다. 또한 다양한 구강 관리 용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며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지난 2월부터 대한치과병원협회장으로 활동중인 정영수 치대병원장

은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용인,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 체결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상호 발전 목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6일 5층 대회의실에서 SK하이닉스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윤수 1부원장과 김철식 기획관리실장 등을 비롯해 김형환

SK하이닉스 안전보건환경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임직원과 종사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 의료기관 이용 수월성, 학술 및 기술 교류, 지역사회 교류 및 봉사활동, 조

직문화 차원 협력 증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윤수 부원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



공한다는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

으로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한 소중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서호석 신일씨엠 회장 2억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서호석 ㈜신일씨엠 회장이 의료원 발전기부금 2억원을 후원했다. 서호석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게 됐다.

지난달 3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기원 전무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한웅규 발전기금사무국장이 참석해 후원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기원 전무는 “가족의 치료를 위해 의료원을 다니다보니 세브란스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버님을 대신해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서호석 회장님과 서기원 전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료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연찬 장임칼스 회장 1억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임의선·조창석·김병수 간호사상 금

한국 최초 특수유희류 제조기업 장임칼스(주) 구연찬 회장이 의료원 발전기부금 8000만원, 연세암병원 임의선·조창석·김병수 간호사상 금 20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달 12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구연찬기금위원회 협정권 교환식에는 구연찬 회장,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최진섭 연세암병원장, 김용욱 기획조정실장, 이상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구연찬 회장은 “작년에 처음 세브란스에 기부를 시작하며 큰 뿌듯함을 느꼈다”며 “김병수 전 총장님, 이영선 이사장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덕분에 나눔의 기쁨을 느꼈고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대로 세브란스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기부 뜻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지난해 1억 후원에 이어 또 한번의 큰 기부에 감사드립니다”며 “회장님의 뜻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최초로 최첨단 유희류 기업을 창업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공헌한 구연찬 회장이 출연하는 기금을 관리할 운영위원회 설립 헌정식이 지난날 12일 열렸다.

구연찬 회장이 1억원을 기부할 때 의료원은 구연찬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구 회장의 기업창업정신과 사회공헌에 대한 숭고한 뜻을 받들어 환자치유와 의학발전에 기여할 사용처를 정한다.

구 회장의 스승 이영선 전 대통령경제자문위원 부위원장과 김병수 총장 주선으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설립됐고 의료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지난해 기부금 1억원은 의과대학 의사과학자 양성기금과 중암자암치료연구소 기금으로 정립됐다.

정봉 미주동창 9만 5088달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정봉 미주동창(의대 73년 졸)이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9만 5088달러(약 1억 2622만원)를 기부했다.

정봉 미주동창은 “학창 시절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과 하나님

께 모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모교 신축을 위한 모든 미주동창의 간절한 기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기부 뜻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꾸준히 의과대학을 위해 후원금을 전한 정봉 동창은 이번 후원금을 포함해 누적기부총액 11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지구촌교회 등 교계 1억 2000만원



소아환우 치료비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대한민국의 피로회복 시즌4를 진행하며 모은 1억 2000만 원을 연세의료원에 기부했다.

2020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는 COVID-19가 촉발한 혈액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이다.

4회째 행사에는 총 1만 3119명이 참여했고 6882명은 직접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하지 못한 인원들은 우산, 텀블러, 키링, 에코백 등 기념품을 구매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은 지구촌교회, 구

리지촌교회, 목동한사랑교회, 서울침례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 신동탄지구촌교회, 일산성광교회 등 52개 교회와 기독교단체 7개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받은 기부증 수량에 맞춰 1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모인 1억 2000만원은 소아 환우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교회 등 교계 여러 단체에서 함께 기부해 뜻깊다”며 “2020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1회성 행사가 아닌 만큼 캠페인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두화·조경래 대표 부부 1억원

Severance One Family 후원금

이두화·조경래 레드우드골프센터 대표 부부가 의료선교센터 Severance One Family 후원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이두화·조경래 부부는 “아버님께서 의료원에 많은 신세를 지시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140여년 전 의료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오셨듯 세브란스의 흘

통한 의료진 분들께서도 의료선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두화·조경래 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기부자 협운해운(주) 마상곤 회장의 권유로 후원하게 됐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게 됐다.

고봉석 미주동창 5만 2369달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고봉석 미주동창(의대 84년 졸)이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5만 2369달러(약 6651만원)를 기부했다.

고봉석 동창은 “졸업 동기 이은직 학장이 의과대학을 잘 이끌어 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며 “하루빨리 새로운 의과대학이 지어져 연세의대의 발

전과 함께 훌륭한 후배들이 세계 의학 역사에 한 획을 그길 바란다”고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고봉석 동창은 2011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매년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을 전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누적 920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의과대학

- 김상익 의대동창(59년 졸) 신축기부금 \$1000
- 김천수 의대동창(69년 졸) 세브란스 재단 기부금 \$6000
- 이영빈 의대동창(61년 졸)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석신 연구기부금 \$1000
- 허정 의대동창(62년 졸)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홍준식 연구기부금 \$1000

간호대학

이유숙 간대동창(60년 졸) 장학기부금 \$5000

어린이병원

허정 의대동창(62년 졸) 소아내분비과 발전기부금 \$1000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김남현 명예교수(의대 61년 졸)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대한약리학회 이우주신약연구소 연구기부금 2000만원
- 이승현 연세조이산부인과의원 원장(의대 87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의료산업총동문회 대학원 발전기부금-강남 2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이윤석 후원자 정신건강의학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에이원아카데미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허재원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 황성연 후원자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어린이병원

- (주)이도 발전기부금 1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 김현식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창회소식

의대 총동창회, 6차 실행이사회의

의대 총동문회 6차 실행이사회의가 지난달 11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열렸다. 이날 진행된 교내부회장 보고에서는 지난달 4일 중앙위원회에서 한승경 의대 총동문회장을 재단 파송이사로 재선출해 재단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 파송이사 추천 공문을 접수했음을 알렸다. 또 앞으로도 의대 총동문회장이 재단이사 중 동문회 대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동창의 밤 개최 예정 일정을 보고했으며, 그 외 각 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기타 토의사항은 이한규 간행위원장이 안전으로 상정한 각종 문서 작성에 있어 회칙 개정에 따른 동문회 표기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간호대, 멘토링 프로그램 체결식

간호대학은 지난달 21일 창조관에서 ‘2024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체결식을 개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임상, 제약,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멘토와 재학생 멘티 61명이 참석했다. 체결식에서는 멘토들의 약력 소개와 함께 멘토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올해 멘토로는 김철아(97년 졸,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대외협력), 손선영(96년 졸,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이혜정(04년 졸, 대웅 제약 개발본부), 조유림(13년 졸, 삼성서울병원 보험심사팀), 최미영(99



년 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근거연구팀), 지현주(12년 졸, 세브란스병원 152병동), 최지영(17년 졸, 세브란스병원 간호지원팀), 임이랑(04년 졸, 메드페이스 임상연구부)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8명의 멘토와 61명의 재학생 멘티들은 올 한해 정기적인 대면 만남을 갖고 진로 탐색, 관심분야 커리어 개발, 인생설계 등을 주제로 교류할 예정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4.1-4.30)

의료원 (발전기부금)

김경아,이은사,이만천 김대환 김동진 김사가 김영숙 김영철 김정주 김현실 민병철 민채원 민형기 박상민 성실교회 유남순 이규래 이기백,이연경 이정웅 이한결 정재숙

의과대학 (발전기부금, 서울지원금, 신축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장학기부금)

(재)범석학술장학재단 Daniel Prieto Alhambra 강문기 강승하 강신애 강영수 강종화 고경봉 고기은 송승일
곽재식 구철회 권오현 김규태 김기용 김기춘 김다희 김도담 김도현 김도훈 김동욱 김동한 김두현 김명희
김문아 김미라 김민선 김민유 김민정 김방현 김보미 김선우 김철아 김세광 김소연 김수정 김수형 김영기
김영희 김우정 김유근 김유미 김은경 김의현 김인성 김재원 김정환 김정호 김중호 김주섭 김주연 김주희
김준식 김준형 김진숙 김진영 김진형 김찬우 김철 김태욱 김한중 김현규 김형승 김형중 김효진 나비푸드
남용택 노은비 류동열 문무성 민정환 민화준 박상학 박석오 박선아 박재민 박정호 박중운 박주아 박해승
박한정 박혜원 방서욱 백승 백승재 백승학 부상돈 부영준 서경 서장현 세연희(30주년) 손기동 손기혁
손승국 손영완 손홍석 송승국 송금순 송은규 신계철 신동철 신명숙 신민수 신원철 신의철 신희진 심원홍
안강현 안동녀 안영수 안창수 안철민 양성윤 양혁진 오승택 오영국 오정택 오한섭 우찬명 원종만 원종윤
유관재 유봉국 유수미 유순혜 유현지 박소현 유홍옥 윤영선 윤용노 윤지혜 이강식 이경민 이경숙 이경재
이근해 이꽃실 이남선 이다혜 이상은 이상주 이상현 이상은 이상진 이슬희 이수정 이수영 이승진 이영효
이위현 이장훈 이재정 이정은 이정준 이정표 이종화 이종희 이차영 이현철 이혜리 이혜연 이혜정 이홍규
임길채 임성규 임성은 임준열 장병두 장상호 장선아 장성구 장재순 장혁순 전태주 정승원 정예리 정윤경
정재욱 정현택 조경열 조동식 조미숙 조미영 조소이 조원 조준호 조준희 조진호 조철호 주진우 차경빈
천근아 천선희 최성희 최승준 최영진 최영미 최원준 최진진 최정필 추성필 탁관철 표화영 한승경
한재욱 함석진 하영옥 홍문기 홍민기 홍사민 홍순희 홍준호 홍창의 홍현준 황성원 황여진 황은지 황익선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연구소기부금, 장학기부금)

(주)네오바이오텍 (주)엘코 강두하 김준강 김기환 김동주 김선영 김종태 김지현 김창대 김태원 김형선 김호중
김훈 노문호 박지현 박현식 손홍규 신수연 아라마크(주) 양순봉 연세퍼스트치과의원 오찬석 유지현
윤석민 이명희 이상화 이승일 이연중 이예찬 이우원 이의홍 이재영 이준승 이채나 이현호 임병진 장계봉
장성중 장승영 장재승 전국진 전혜민 정승민 정진준 조은석 차응식 채문희 최성호 최승원 최윤주 최윤희
최진식 한아름 황석하

간호대학 (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간호대학 25주년 재상봉(99년졸) 간호대학 50주년 재상봉(74년졸) 강수경 권수현 권혜진 김경자 김명희 김미정
김선학 김소영 김소원 김소희 김수현 김숙향 김숙현 김연심 김영미 김경우 김지희 김현례 남봉화 류정희
박보영 박성혜 박영희 박현숙 배선형 서정원 서주영 송수영 송영희 송은경 신영숙 신윤정 신진여 안지영
오상근 오영숙 윤지영 이경희 이계숙 이금숙 이상미 이승현 이월숙 이은석 이정로 이정민 이정열 이형건
이혜숙 임유미 전미혜 전상금 전유미 정남연 정순화 정주미 정현숙 정현자 조원정 조윤희 진영현 최문선
최미영 한현정 황인희

보건대학원 (발전기부금)

김수정 이희주 정우진 천자혜 한순옥 한희중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코오롱 (주)뉴글로벌해운
강선영 고대우 고재일 공동모금-원목실 박호철 구철회 권정현 김규원 김다경 김대원 김도연 김동규 김상은
김성진 김승업 김연순 김명근 김은홍 김은경 김정훈 김지은 김태형 김하엘 김현정 나ومی 맹승렬 박도봉
박민재 박병섭 박성현 박아영 배은별 백선필 비전광림교회 서울침빛교회 성웅용 세전협 손지현 송성광
신금식 안민기 안수연 안중순 양중근 엄지혜 여철구 오자선 우성진 우지윤 유세웅 윤다혜 윤정숙 이근민
이동석 이보현 이상원 이상현 이순재 이승규 이진희 이춘호 이택규 이현수 이홍철 임보미 임은경 임일권
임지경 임태연 장승희 전선영 정경석 장익수 정재균 정정윤 정종환 정효섭 조선경 조성찬 조신제 종교교회
주혜린 주호중 최석순 최우진 최지훈 최진호 최형철 하진규 홍성훈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원화의료센터 후원금)

강선영 강성희 강정석 가성민 김기세 김세연 김은하 김창무 김창호 김채현 김태은 김표정 박다현 서예준
송현규 심난향 심태보 양화진 오요도곡점 윤명희 윤성식 이병훈 이상근 이상순 이안나 이장미 이준환
이진우 이한결 임민호 임정열 전혜영 전홍업 정인혜 청천교회 최선재 최소영 최윤서 플레이올라 한예준

재활병원 (발전기부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박재우 오박영 유춘희 육근미 윤도웅 이원미 임성규 장성구 진경련 천춘경

심장혈관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고종석 구본환 구철회 권순연 김명옥 김미진 김범석 김봉섭 김상현 김영선 김형수 김혜민 박성모 박우현
박인수 박지형 박혜영 배명일 배한수 백경혜 서금순 서이준 송근호 송영 송의석 송태선 심영재 심영훈
안형이 오호례 유승연 은강감리교회 은영표 이수민 이순생 이재한 임하철 정지연 조영은 홍성석 홍용우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Samuel Sangbum Kim 김지수 고한승 구본욱 권원자 권택환 김경락 김태석 김하윤 김현원 남경백 단우준
류창욱 문혁기 민유빈 박윤하 방윤지 서울도시가스(주) 신우진 신우철 안상준 안진웅 안초현 여세은 오재욱
유혁재 윤승희 윤웅섭 윤유현 이산 이상은 이서진 이아령 이장표 이종도 이현재 장동하 정필식 정병호
조나은 조성현 조은형 최성환 최수철 한채린 허서안 허윤진 허지만 홍정민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연구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주)KT&G 남서울본부 (주)센트릭서전 BBSGUL BIS 국제학교 학부모회 강남 원목실 강동현 강선영 강성민
강윤주 강진숙 공재철 공형석 권두환 권순자 김경석 김경식 김기숙 김대중 김도현 김동규 김동수 김동진
김동현 김만기 김명균 김명수 김명신 김미희 김민균 김병규 김병무 김상진 김수민 김수현 김순달 김양안
김양자 김영규 김영상 김영섭 김영준 김요섭 김용구 김용기 김유안 김유정 김정혜 김종민 김중하 김중현
김주섭 김주현 김준수 김지훈 김찬용 김철원 김태연 김현수 김현정 김호영 김호권 김효종 김효숙 김희진
노동조 노영채 노태규 더퍼스트치과의원 동탄연세세브란스치과의원 마한주 문순임 문영일 문은희
문현용 박경민 박다운 박명자 박명화 박세광 박소현 박수진 박아영 박운선 박윤희 박은하 박정원 박준상
박준성 박중현 박찬우 박재수 박태현 박해선 박혜숙 박희영 방명환 배승남 배재욱 백경혜 백상삼 백창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분당지구총교회 서동훈 선진기(전주) 성공제 세상속으로가는 요가원 책돌 손인숙
손태경 신수정 신외선 신윤식 신은혜 신민철 신지선 신헌진 심재용 안상호 안철민 양우선 양윤모 양정윤
엄소연 연세오피스치과 연세튼튼치과 염정환 오계수 온화스님 우동호 유영호 윤경희 윤봉선 이기련
이동순 이명자 이명희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성주 이성혜 이성희 이수천 이시우 이신애 이예경 이양란
이영지 이옥순 이용산 이용식 이윤 이윤재 이은정 이정우 이종민 이주용 이창호 이철우 이충근 이태임
이형선 이홍재 임성규 임성우 임소민 임재열 장미옥 장성구 전대라 전수영 전용철 전하라 정기영 정광익
정대희 정명일 정선양 정의석 정철 정철오 조동희 조승현 조아라 조연진 조원경 조승현 조화정 조병규
주재일 진예림 진정현 진하준 천옥순 천준영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연 최수희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옥희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중혁 최준원 최홍식 최희원 하늘씨앗교회 하영란 한수연 허수창 헤리치과
의원 흥버기 흥인영 흥정석 황성웅 황유식 황혜진

용인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목회기금)

가수진 김광연 김푸름 박근애 분당지구총교회 설진성 용인주일예배한금 유병국 이세미 장상미 장영란
정영준

치과대학병원 (발전기부금)

이성봉

의료선교센터 (발전기부금, 선교 및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운정뱌엘교회유지재단 (재)성서침례교회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개봉교회 고양동산교회 광주겨차교회 권예은 김관식 김나희 김성태 김현영
김호택 나라엘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대구동산교회 대학마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베이직처치 성당교회 새벽교회 생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현교회 서울은혜
교회 서울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세계로교회 손기혁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색감리교회 수영로세
계선교회 신생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아름다운교회
안강중앙교회 연대인사팀 연동세션 연희교회 예능교회신교 예장영광교회 오지영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우면동교회 우원기 은진원 은평광은교회 이경덕 이수정 이요한 이일학 인천성산교회
장병식 장석교회 장성구 장위제일교회 전주온누리선교회 주내침교회 주관교회 지구촌교회
천안장로교회 천정범 최혁환 충신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포항충진교회 행복나눔교회 홍주의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곽수선나 박호철 권미경 남궁경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열두광주리명성교회 염산교회

기고 |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

카네기홀의 에비슨 박사님 소환

궁금한 것 하나가 늘 마음 속에 있었다. 에비슨 박사님이 1900년 카네기홀에서 조선땅에 현대식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어떤 표정,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까? 강한 웅변조? 아니면 본인의 성품처럼 조용하고 온유한 어조로 이야기했을까? 조선의 의료현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 본인이 선교사로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길래, 의료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생겼을까? 요즘처럼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상상 속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최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참가한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르완다 대통령이 의료원을 방문했고 대통령을 수행한 두 나라 보건부장관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1900년 카네기홀의 에비슨 박사님 모습을 보게 된다.

르완다 보건부장관

비교적 젊은 나이인 부테라 보건부장관은 대통령이 의료원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사전답사 목적으로 혼자 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르완다 의료상황을 담은 자료를 가지고 왔고 자신에게 15분 정도 발표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르완다는 1994년 인구의 10%가 학살을 당하는 큰 비극을 겪었지만 2000년에 집권한 현 카가메 대통령의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으로 사회 구축구석에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 특히 의료정책과 제도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COVID-19 팬데믹 시기에는 아프리카에서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 중의 하나로 꼽혔고 이는 네이처 등 학술지에도 게재됐다.

“르완다의 의료가 괄목할 만한 발전

을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부테라 장관은 주저하지 않고 “지도자와 시스템입니다”라고 답변한다.

“르완다의 의료는 큰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진료시스템은 잘 정착됐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전문의를 잘 키워서 3차 진료시스템의 정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과 중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가 5개가 있습니다. 신생아학, 종양학, 중재영상의학, 중환자의학, 흉부외과학입니다. 이 5개 부분의 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브란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라리온 보건부장관

템비 보건부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유행성출혈열의 분자생물학적 진단과 역학을 전공한 다음 미국에 가서 질병관리센터(CDC)에서 30년간 근무

했다. 2014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출혈병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파견한 전문가 중의 한 명이었고 그후 4차례 더 방문해 에볼라 출혈병을 제어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20년 COVID-19가 창궐하자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템비 박사에게 전화로 수차례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곧 시에라리온 보건부장관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에 의료선교센터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 시에라리온에는 머시쉽(Mercy ship, 국제선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1년동안 정박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연세 의료선교센터가 머시쉽과 같은 정신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만나고 연락을 했습니다”로 시작한 보건부장관은 매우 겸손하고 소탈한 성격을 가진 국제보건전문가였다.

“연세의료원이 우리나라 의료진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

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비슨 박사님 소환

두분에게서 에비슨 박사의 모습을 보았다. 르완다와 시에라리온 의료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두사람의 표정에는 겸손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고 전문가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자기 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조리있게 설명을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부탁이 아니었다. 이 일은 꼭 ‘세브란스’가 해주셔야 한다는 간절함을 담은 설득력이 있었다. 르완다와 시에라리온의 국민들이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1900년 카네기홀에서 에비슨 박사님도 이 보건부 장관 두분처럼 말씀하셨을 것 같다. 지도자 한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으며 에비슨 박사님에게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강남,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절차 마련 Kick-off 회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센터가 최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료기기 사용적합



성 평가기관 협의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 인증·심사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그리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17개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체가 정부와 인증·심사기관, 산업계와 사용적합성 평가기관들로 구성된 만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의 세부 과제로, 강남세브란

스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연구센터 장원석 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이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협의체와의 주기적인 회의 및 자문을 통해 사용적합성 평가 표준절차 및 평가기관 운영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

장원석 소장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평가기관 간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식약처와 평가기관,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하고 효과적인 표준절차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의약품부작용 우수 보고자 시상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7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자 및 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병원은 의약품부작용감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부작용 보고와 재발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매년 우수 보고자와 부서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 보고 부서 부문에는 101병동과 트가, 우수 보고자 부문에는 정윤아(101병동 파트)·정유경(외래2파트) 간호사가 선정됐다. 각 수상자와 부서에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됐다.

한편, 소위원회는 원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



계를 관리하고 있다. 의심 의약품, 이상 반응, 인과관계, 심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의뢰인에게 공유해 같은 부작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부작용 보고 현황을 전 직원과 공유하는 등 교육·홍보·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소아청소년암 극복 위한 산삼 전달

‘산삼을 찾는 사람들’ 회원들이 올해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직접 채취한 산삼을 전했다.

연세암병원 4층 소아청소년암센터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대 산삼을 찾는 사람들 대표 등 회원과 소아암 완치자 대표 1명, 의대 한정우 교수(소아과), 박소라 사회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소아·청소년암 완치자 8명에게 산삼을 전달했다.

한정우 교수는 “산삼을 찾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어온 꾸준한 기부로 완치자에게 큰 힘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대 대표는 “회원 모두가 열심히 임해 얻은 산삼으로 완치자들이 더욱 건강해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산삼을 찾는 사람들’ 회원들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2008년부터 총 120명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산삼을 기증해 왔다.

『게시판』

의대 홍태희 교수(흉부외과)가 제29회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젊은의학자 논문상을 수상했다. 홍 교수는 폐암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의 치료 저항성을 예측하는 유전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입증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폐암학회 공식학술지(Journal of Thoracic Oncology, IF 21)에 게재됐다.

치대 박연정 교수(구강내과)가 제48회 미국안면통증학회(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AAOP)에서 최우수 구연발

표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MRI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스크리닝 모델을 개발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창의도전 과제 사업 지원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 정지아 파트장이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정지아 파트장은 병원약제 업무개선과 병원약사 직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